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 24 빌딩 서관 1515 호 (06211)
전화: (02) 2183 3852
팩스: (02) 2183 3850
홍콩특별행정구정부 경제무역대표부
수석대표



Principal Representative

Hong Kong Economic and Trade Offic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ecretarial Agent) Rm 1515, West Wing,
Hanshin Intervalley 24 B/D, 322, Teheran-ro, Gangnam-gu,
Seoul 06211, Republic of Korea
Tel: (02)2183-3852 Fax: (02)2183-3850

2019 년 8 월 29 일

수신
경향신문사
최병준 편집국장 귀하

(참조) 경향신문사 발행인

지난 8 월 19 일자 경향신문에 홍콩 시민들이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의 날로 심해지는 폭력에 직면하고 있으며 홍콩의 자치와 자유가 침식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광고가 실렸습니다.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이러한 근거 없는 주장을 전면적으로 반박하고, 내용의 정정을 위해 이 회신이 경향신문의 기고란에 게재되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우선, 해당 광고를 통해 주장된 내용이 홍콩에 관해 극단적으로 오도하려는 심한 과장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홍콩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가 위협받고 있거나 침식당하고 있다는 주장에는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홍콩에서 시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전세계에 보이는 것과 같이 매우 잘 보장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6 월 이래 접수된 집회 및 행진 신청 125 건에 대해 홍콩 경찰이 발부한 허가서는 100 여 건을 상회합니다. 홍콩의 지역 및 해외 언론을 통해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개입없이 자세히 보도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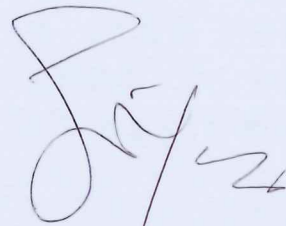
최근 몇 주 동안 홍콩은 강경파 선동가들이 조직한 폭력 시위로 인해 극심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과 의견을 달리하는 자들을 공격하는 등 홍콩의 근간을 파괴하는 일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는 평화 시위도, 질서 있는 항의도 아닙니다.

홍콩국제공항에서도 대혼란이 발생하여 수만 명의 무고한 여행객들이 귀국길에 오르지 못한 채 공항에 발이 묶이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무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악의적인 공공 기물 파손 행위와 더불어 벽돌 등의 심각한 살상 위험 무기를 동원하여 경찰서 및 경찰 가족 숙소를 습격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이는 평화롭고 이성적인 방식의 의견 표현이 아닙니다.

이렇듯 홍콩이 역사적으로 중대한 기로에 놓인 현 시점에 우리는 홍콩을 벼랑 끝으로 밀어내려는 폭력 시위를 거부하고, 홍콩의 상징이자 번영의 기반이 되어준 평화와 안정을 되찾는 일에 각계각층이 동참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홍콩은 법의 지배와 사법권 독립, 인권 및 자유 보호 등 오랫동안 존속되어 온 우리의 가치 유지를 매우 중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치 않는 굳은 의지로 이러한 핵심 가치들을 수호하고자 합니다.



홍콩특별행정구정부 경제무역대표부
수석대표 용패문 (Shirley Yung, 셸리 용) 배상